

# 불교교양대학 거사들이 늘고있다

◇전국 불교대학(288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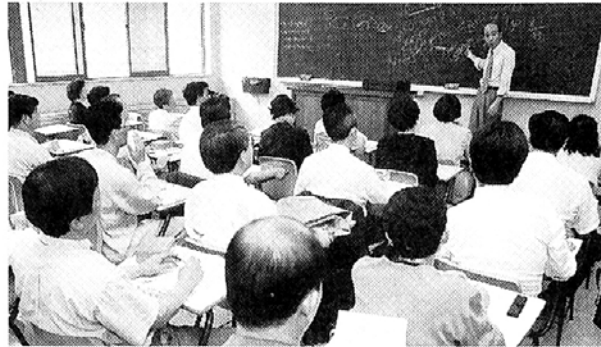
대학명	전화
삼화불교대학	(02)511-2026
조계사불교대학	(02)720-1390
동방불교대학	(02)763-0229
불교어사학대학	(02)921-3425
한국불교법사대학	(02)737-5305
동산불교대학	(02)732-1206
대원불교대학	(02)766-7156
부산불교교육원	(051)466-4080
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한국승가대학원	(053)952-8711
영남불교대학	(053)475-3706
대구불교대학	(053)255-4873
불교대구교육원	(053)253-7063
직지불교대학	(053)754-9629
전북불교대학	(0652)226-7878
호남불교대학	(062)222-0819
광주불교대학	(062)375-7603
대전불교대학	(042)627-8600
청주불교대학	(0431)63-2329

98년 신입생 모집이 한창인 불교대학을 찾는 우바새(재가 남성 불자)들이 늘고 있다. 남자 수강생에 비해 여학생 수가 많거나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이던 것이 올해는 오히려 남자 수강생이 정원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동산불교대학의 김재일학장은 IMF 한파로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종교계의 심리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구열이 상승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또 당분간 점차적 수직폭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GROWING-UP CLINIC(성장발달 클리닉) 원장 김희선씨는 "상실감, 불안감, 초조감 등을 느끼는 사람

일수록 종교계의 심리가 크다"고 말하고 "질박한 심정일수록 맹목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비춰볼 때 남성불자들의



◇동국대 사회교육원이 마련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강좌를 들으러 온 남자들이 강의실을 메우고 있다.

## IMF 실직자등 입학 정원 70%

### 불안·상실감 치유...제2인생 설계

불교대학 입문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4개월 전 명예퇴직을 했다는 박모씨(46·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박씨는 20여년을 몸담아 온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고는 며칠 밤을 지냈다고 한다.

"처음엔 근사한 사업을 시작해 이전 생활보다 더 잘 살아 보겠

다는 오기로 동분서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고, 사기까지 당하고보니 정신이 바짝 나더군요. 우선 분하고 초조한 마음부터 다스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불교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삼화불교대학 학장 해인스님은 "고학력 남성불자들을 위한 전문

상있는 프로그램과 쉽고 재미있는 수업진행 방식을 모색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씨조차 밝히기를 꺼려했던 채모씨(37·서울시 양천구 목동)는 "불교에 대한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불교인성상담, 불교복지 등 실용불교적 측면을 고려한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경기체제와 위축돼 있는 불자들의 유치를 위해 98년 불학기 접수자들에게 입학금 및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은 고졸학력의 40대 남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노부모가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요양시설보다 병원과 다닐 수 있었고 불교인으로서 긍지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 불거리와 들을 거리 등 종교시설로써뿐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노후생활은 요양원서" 69%

"부양받을때 마음맞는 자식과 함께" 52%

### 도광스님 337명 설문

경제적 지립을 희망(52.8%)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원(68.9%) 이용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부모를 부양함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장남부에게 책임이 전가(29%)하기보다 자식 중 부모와 마음이 맞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51.8%)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부모 부양의 식과 노후 생활 전망'을 주제로 한 도광스님(불광현의원 원장)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논문에서 밝혀진 것으로 세대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는 서울시민 3백3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30대 28.8%, 40대 38%, 50대 33.2%의 분포를 보였다.

## 우애·불심다진 문화한마당

### 금강정사 '청소년예술회' 눈길

금강정사(주지 지흥) 제3회 청소년예술회가 학생회 주관으로 지난 달31일 금강정사 법당에서 열렸다.

예술제는 연극, 시낭송, 콩트, 인형극, 피아노와 플루트 연주, 사물놀이, 합창 등 단위 사찰이 아닌 포교당에서 그것도 학생회 중·고등학생 30여명이 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버거웠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 주목 받았다. 곳곳에 솜씨를 부린 무대장치와 의상 또한 눈길을 끌었다.

여장분장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했던 박성주군(학생회 6기, 평명고 3)은 "학생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예술제여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예술제 준비기간 동안 동료와 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고 불교인으로서 긍지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 불거리와 들을 거리 등 종교시설로써뿐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만화 백 년 안 녕 이 향 원

\*이 광고는 일부 후원회원님의 정성과 신문사의 협조로 제작되었습니다.

# 대부도 동지청소년의 집을 아십니까?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불황과 IMF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무의탁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동지청소년의 집"을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등지 가족은 불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은혜에 힘입어 따뜻한 부처님품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던 형제가 또 새식구로 들어와 이제 저희 식구들은 모두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꾸 늘어만가는 식구에 비해 지금의 비좁은 수용시설로서 다함께 생활하기에 무척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 부득이 요사채를 더 증축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45명의 등지식구와 앞으로 들어올 새식구들이 함께 지낼수 있는 요사채를 새로 지어 따뜻한 부처님도량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불자님께 간절한 도움을 청하오니 정성껏 도와주시길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동지청소년의 집"을 아껴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불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등지마을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농 협 : 053-02-100544 (예금주:김문선)

■ 지로번호 : 7629390 (동지청소년의 집)

\*매월 3,000원 이상 우송하시면 누구나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웃 가족에게도 권유하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헌사 주지 법 현스님

동지청소년의 집(등지마을) 후원회

(우)445-330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21번지

전 화 (032) 883-9033(자헌사)

(032) 691-7686(후원회)